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0 No.17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2011년 4월

김우종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Ⅰ. 개요 ····· 1

Ⅱ. 한국,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 5

Ⅲ. 정부의 지원제도 및 기업의 유학생 채용현황 ····· 11

Ⅳ. 일본의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정책 ····· 16

Ⅴ. 중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전략 ····· 22

□ 보고서 내용 문의처
김우종 연구원(☎ 02-6000-5342, kwj@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유학생 유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우호 및 지지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2010년에 8.4만명인 반면, 해외로 유학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28만명에 달해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대외 홍보 및 유학생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중국의 해외 유학생 수가 30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종합적인 교육서비스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관련 전문성, 강의 충실도, 평가제도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학권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한국이 일본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유학국가에 취업하겠다는 응답비율은 한국이 일본의 1/3에 불과했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유학생 채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생활비 문제는 일본 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조사되어 체류비용이 훨씬 적은 한국에 기회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의 11.8%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으며 유학생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으나, 향후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10.4%)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아직 우리 기업의 유학생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및 인력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올해 유학생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21.7%로 한국보다 약 2배나 많았다.

중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 교육의 브랜드확립 및 홍보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한국문화 홍보자료 및 한류 등과 연계하여 교육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내 한국어교육 거점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중국인 학생의 관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국내 유학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강의별 유학생 비율을 제한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고, 동호회 활동 및 대학내 시간제 취업을 확대하여 유학생이 쉽게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기업의 인턴십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국내 취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유학생 유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유학생 채용확대는 유학 희망자를 늘리는 좋은 수단이 되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재육성 허브국가로서의 이미지 구축 등에도 도움이 됨을 인식하여 기업들도 유학생 활용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본 문

Ⅰ. 개 요

□ 한국의 유학·연수수지는 사업서비스 다음으로 적자 폭이 큰 서비스 무역 분야로, 1993년 통계집계 이래 누적적자가 400억 달러에 이름

○ 2010년 유학·연수 적자는 44.5억 달러로, 2000년 대비 그 규모가 약 5배 증가

– 이는 서비스산업 분야 중 사업서비스(157억 달러 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자 폭이 큰 분야임

○ 유학연수 적자가 매년 40억 달러를 웃도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로 유출되는 한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

– 2010년 해외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조기유학생 (초중고)을 포함하여 약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명에 불과

<한국의 유학·연수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export)	28.0	44.9	54.4	36.3	37.1
지급(import)	4,514.6	5,025.3	4,484.5	3,999.2	4,483.5
수지	- 4,486.6	- 4,980.4	- 4,430.1	- 3,962.9	- 4,446.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1)

□ 그러나 한국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국가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3만 명에서 2010년 8.4만 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35.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최근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2007년 51.3%에서 2010년 10.5%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대학에 재적 중인 총학생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1]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0.6%에서 2010년 2.3%에 도달

– 외국인 유학생 비율 : 0.6%('05) → 1.4%('07) → 2.1%('09) → 2.3%('10)

○ 유학생 중 아시아 지역 출신이 7.2만 명(85.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중국인 학생의 수는 5.8만 명(68.9%)에 달함

– 2010년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2,316명), 건국대(1,944명), 한양대(1,534명) 등이었으며, 그 외 중국인 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이 전국적으로 10개였음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단위 : 명,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중국인 유학생 수 (비중)	10,107 (44.9)	15,308 (47.0)	23,106 (46.9)	30,579 (47.8)	39,454 (52.0)	57,783 (68.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 유입을 목표로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학생 수용환경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및 한국어 능력시험 확대, 한국유학 브랜드화에 노력

– 현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신문광고, 잡지, 온라인 등)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교육박람회 참가 및 개최 확대

· 2010년 해외 9개국/11개 도시에 207개 대학이 참가(이 중 중국은 2개 도시에 56개 대학이 참가)

1) 총 대학 재적 학생 수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하며,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재적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을 의미(한국교육개발원, 2010교육통계)

– 한국유학 이미지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해 'Study in Korea[2]' 구축 및 유관기관과 공동 홍보

○ 유학생의 입국을 촉진하고 원활한 국내 체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제도 개선 및 각종 상담서비스 실시

– 유학생 등의 재입국허가 면제시행[3], 대학내 이동 출입국사무소 및 이동 상담소 운영

– 교과부,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매년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실시하며 무료 건강검진, 법률상담, 취업상담 등 서비스 제공

□ 2010년 해외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국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는 2005년 12만 명에서 2009년 23만 명으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중국 CCTV는 2010년 중국인 유학생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것이며,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등을 선호한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09/10년 미국내 외국인 유학생 69.1만 명 중 중국인의 수는 12.8만 명(전년대비 30% 증가)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하며, 인도학생 수를 처음으로 앞지름

– 일본의 경우, 2010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 14.2만 명 중 중국인 학생 수가 8.6만 명(전체의 60.0%)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냄

---

2) 'Study in Korea' 는 유학관련 통합적 정보제공 웹사이트로서, 대학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상세 정보를 게시(http://www.studyinkorea.go.kr)

3) 유학생 등을 포함한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됨(2010년 12월 1일 시행)

<해외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학생 수(명)	118,515	134,000	144,000	179,800	229,300	300,000
증가율(%)	3.3	13.1	7.5	24.9	27.5	30.8

*2010년은 추정치
자료 : 중국통계적요(2010)

Ⅱ. 한국,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 본 장은 한국 및 일본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21~3/11)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한국(373명 응답) :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20개 대학 중 10개 대학(서울 및 전라도, 경상도 소재) 대상
· 일본(153명 응답) : 재일 중국인 유학생 연합회 및 모임, 유학생 기숙사 등 대상

1. 유학생활 관련 질문

□ 유학 이유 : 재한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을 가장 많이 선택한데 반해,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은 높은 교육수준을 꼽음

○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유학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22.7%)과 높은 교육수준(22.0%)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단순히 학위취득만을 목적으로 왔다는 응답자도 1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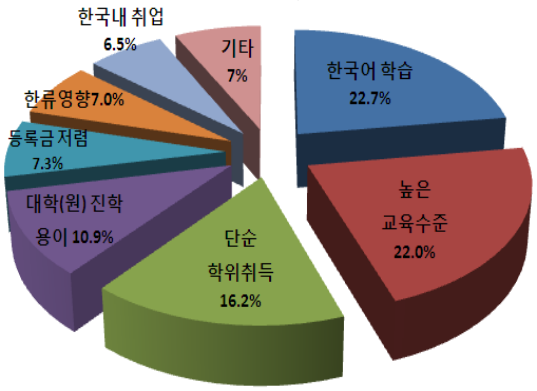
– 응답자 중 한국내 취업을 이유로 유학 온 중국인은 6.5%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재일 중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37.7%가 높은 교육수준을 유학 이유로 꼽았고 일본어 학습(15.9%)이 그 다음 순위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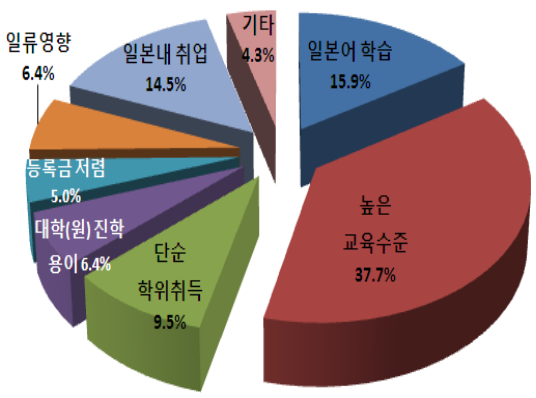
– 일본내 취업을 목적으로 유학 중인 학생은 14.5%로 한국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중국인 학생의 한국 및 일본 유학 목적>

(한 국)



(일 본)



❑ 체류비용 :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비는 한국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학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경우 한국은 월 '30~50만원'이, 일본은 '110만원(8만엔) 이상[4]'이 각각 42.9%, 5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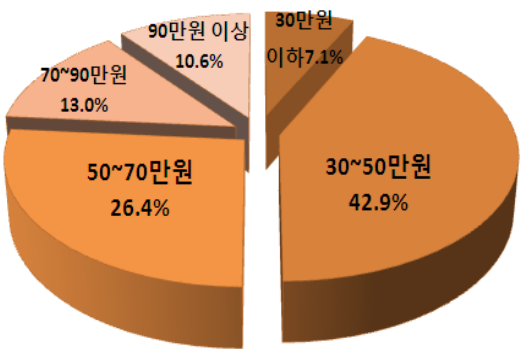
○ 유학생이 부담하는 연간학비는 양국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응답자의 장학금 수혜비율은 일본이 높게 나타남

– 전액 및 부분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한국 42.9%, 일본 67.8%로 일본 유학생의 응답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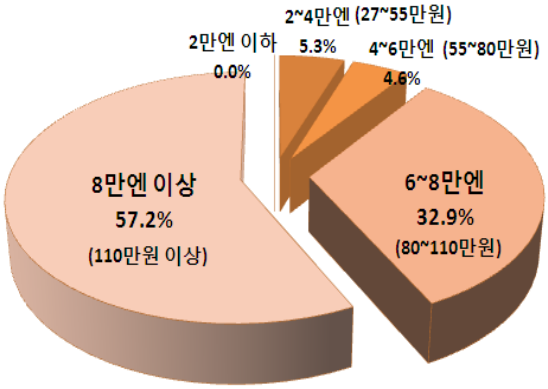
○ 학비와 생활비 조달방법으로 장학금 및 가족지원 외에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겸하는 형태가 한국은 응답자의 42.9%, 일본은 61.9%로 조사됨

<중국인 유학생의 월별 생활비>

(한 국)



(일 본)



4) 원/엔 환율 2011년 3월 기준

2.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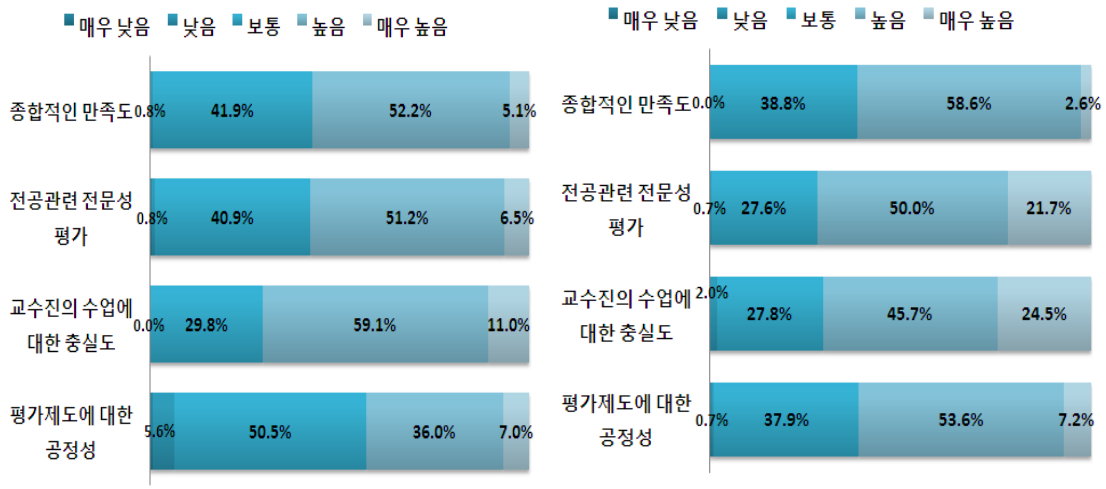
○ 전공관련 전문성 평가에 대해 일본은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7%인 반면, 한국은 6.5%로 큰 차이를 보임

○ 교수진의 수업에 대한 충실도 평가 또한 한국은 '매우 높음' 11.0%, '높음' 59.1%였으나, 일본은 각각 24.5%, 45.7%로 일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우수하였음

○ 학점 등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대해 일본은 '높음'이 53.6%인 반면, 한국은 36.0%에 그침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한 국) (일 본)



☐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유학을 권유하겠느냐' 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한국의 경우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일본의 약 3배)

○ 일본유학 권유에 대해 응답자의 8.5%만이 부정적인데 반해, 한국유학 권유에 대해서는 23.3%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이는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학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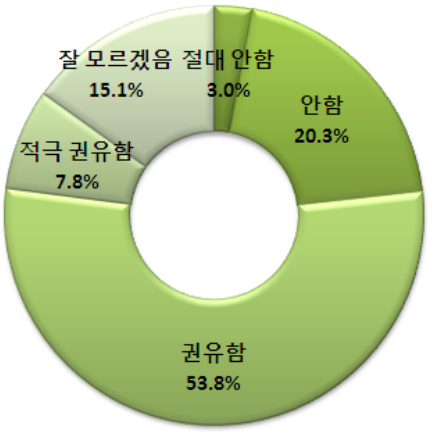
○ 유학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생활비, 학우와의 관계 등으로 조사됨

–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문제(33.1%), 수업의 난이도(23.8%), 학우와의 관계(16.6%)를 꼽았고, 일본 유학생은 생활비(21.5%), 언어문제(20.6%), 학우와의 관계(18.9%)를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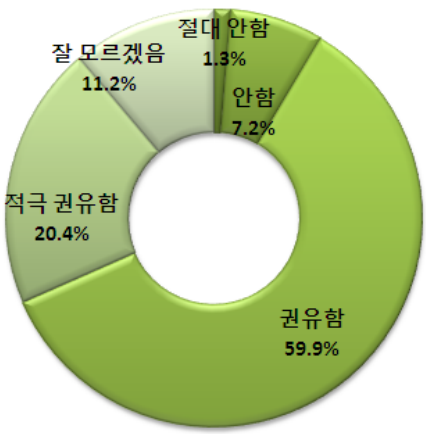
– 그 밖에 각 대학별 유학생 수 제한, 문화 교류의 기회 마련, 기숙사 등 숙소 문제 개선 등의 의견이 있었음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및 일본유학 권유>

(한 국)



(일 본)



3. 국내기업 취업의사 관련 조사

☐ 졸업 후 국내 취업을 계획하는 중국인 학생은 한국이 일본 응답자 비율의 40% 수준에 불과

○ 재한 중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48.6%가 대학(원) 졸업 후 본국으로의 귀국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기업 취업을 희망(17.8%)

– 취업과 관련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이 86.8%로 대다수를 이뤘고, 희망연봉으로 2,500~3,000만원을 가장 많이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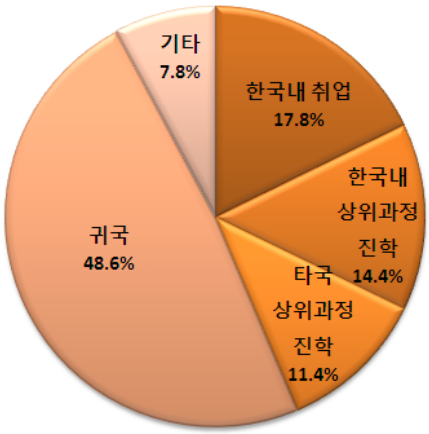
○ 일본 체류 중국학생 중 일본내 취업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44.1%이고, 귀국을 생각하는 유학생도 40.1%로 나타남

–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대기업 취업만을 고려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44.3%에 달하고 연봉도 350만엔(약 4,8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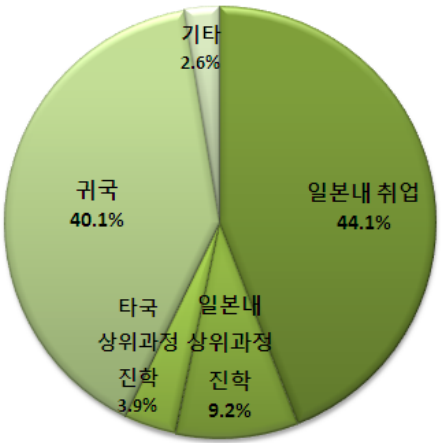
– 이는 일본 대학에 재학하는 유학생이 현지 취업에 매우 적극적임과 동시에, 기업의 유학생 채용환경이 한국보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중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희망계획>

(한 국)



(일 본)



☐ 현지취업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들은 언어문제와 제한적인 채용정보 및 채용기회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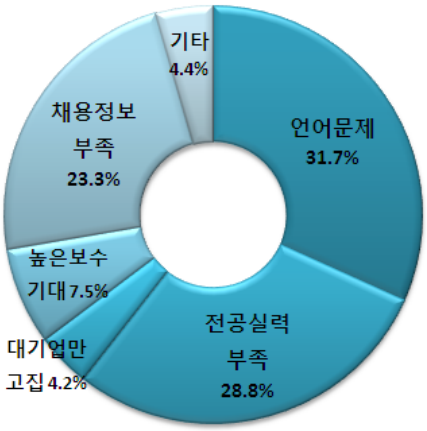
○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개인차원), 한국의 경우 언어문제(31.7%)와 전공실력 부족(28.8%) 등을 꼽았고, 일본 유학생들은 채용정보 부족(27.3%)과 언어문제(20.6%) 등을 선택함

○ 기업·제도 측면에서는 유학생 채용 자체가 적다는 의견이 양국 모두 30%대 중반에 달했고, 그 외에 취업비자 문제 및 졸업 후 취업연계 시스템 취약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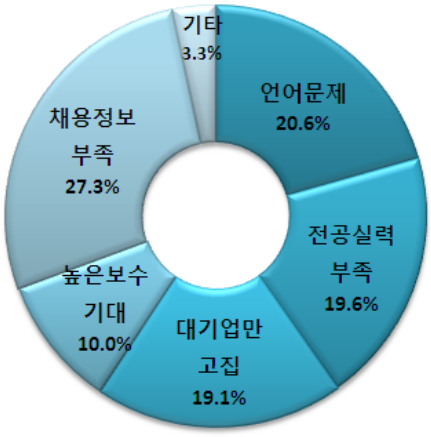
– 기타 의견으로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인턴제 도입, 취업상담 및 교수 추천 등 대학에서의 지원, 외국인 취업 설명회를 통한 국내 채용시스템 이해 등의 의견을 제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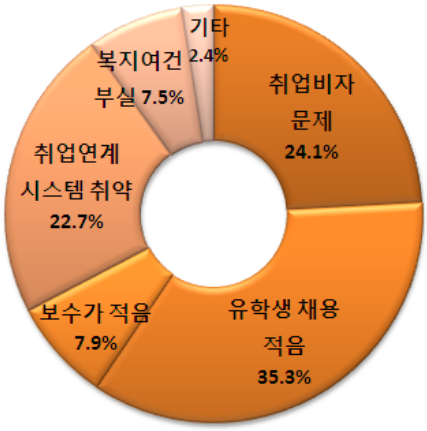
(한국, 개인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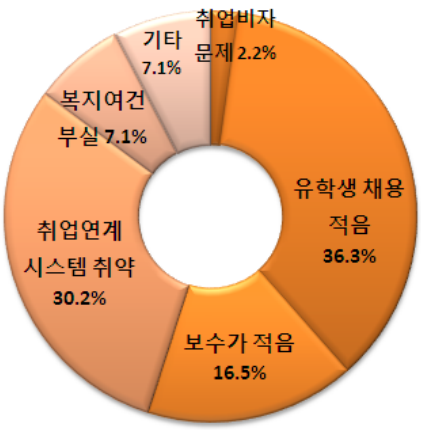
(일본, 개인차원)



(한국, 기업/제도차원)



(일본, 기업/제도차원)



Ⅲ. 정부의 지원제도 및 기업의 유학생 채용현황

1. 정부의 유학생 유치정책[5)]

□ 유학생 출신국 다변화와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친한 인사 양성

○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학생 유치지역 다변화 모색

– 아시아지역은 국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를 발굴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은 교육 학술교류 협정 및 ODA[6)]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전략을 수립

○ 정부초청 장학생 등 GKS[7)] 확대를 통해 우수학생을 유치

– 2010년 정부초청 장학생은 총 1,942명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8)]

□ 유학생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 및 한국유학 적응 지원

○ 각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을 추진

– 2010년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3.2만명으로 그 비율이 약 39.0%에 이름

○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온라인 비자신청, 제출서류 축소 등) 추진

---

5)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2010년 8월 11일)> 참고
6) ODA(공적개발원조)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증여 및 양허성차관으로,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유상협력 집행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무상협력사업을 수행
7) GKS(Global Korea Scholarship) : 정부초청 장학생 교류지원, 국비유학생, 한일 이공계 학부유학생 선발파견 등. 2010년부터는 우수 교환학생 및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등 추가
8)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교육과학기술부)

○ 유학생 상담센터 운영확대 및 멘토링 제도, 외국인 학생 커뮤니티 활성화, 유학생 행사 등 개최 지원

□ 우수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을 지원

○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국내 전문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업의 실수요에 맞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010년 관련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하여 향후 3년간 각 대학에 총 10억 원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 선정된 대학의 모집단위는 정보통신, 자동차 등 공학계열과 뷰티·경영정보 등 사회서비스계열 등으로 구성

- 연계 산업체의 소재지는 주로 중국이며, 각 대학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현지 산업체 및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진행

□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9]를 개최하여 유학생들에게 국내의 다양한 기업을 적극 알선

○ 작년 10월에 개최한 '2010 Career Fair for Overseas Students'는 4회 째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기업의 채용정보 및 취업기회를 제공

- 삼성엔지니어링, SK C&C 등 26개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1,21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이 박람회에 참가(상담건수 약 3,900건, 채용실적 36건)

□ 외국인 유학생 종합안내 시스템(원스톱 서비스) 구축 추진

○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입시, 입국, 체류, 취업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제를 갖춤으로써 편의를 제공

9) 2010년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였으며, 2011년부터 KOTRA에서 주관

–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 교과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이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 체제는 Study in Korea와 더불어 한국의 교육서비스를 제고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

2. 국내 기업의 유학생 채용현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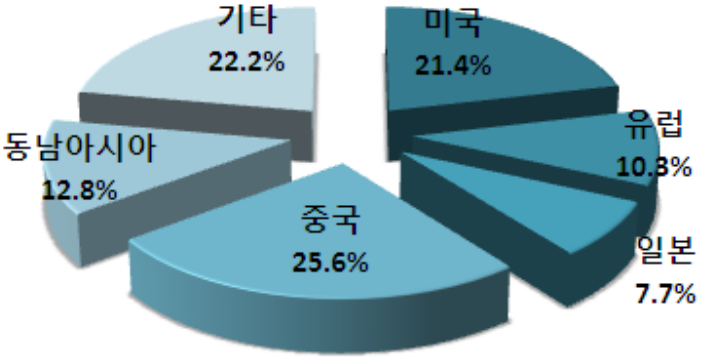
· 국내 수출기업(중소·대기업 포함) 1,003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국내, 해외에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채용과 관련한 설문실시(3/7~3/18)

☐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11.8%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유학생 채용기업 중 수출 기업은 50.4%, 수출 및 해외투자 기업은 46.2%였고,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등 순으로 조사됨

○ 또한 응답업체 중 수출과 해외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4개 중 1개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무역에만 종사하는 기업은 7.9%만이 유학생을 채용

<외국인 유학생 채용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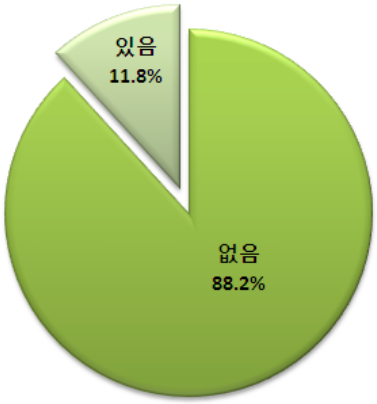
○ 향후 신규채용 및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은 10.4%에 불과하여,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 유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32.5%가 채용을 확대할 의사가 있으며 17.9%의 응답자만이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7.5%만이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올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일본 기업의 반응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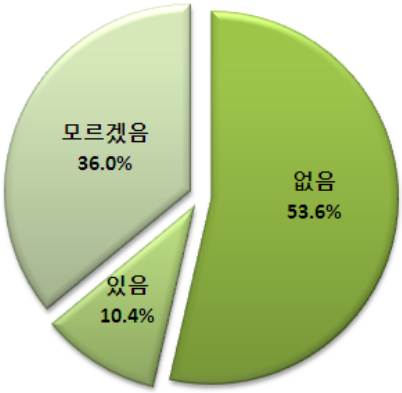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채용여부>

(현재)



<유학생 신규채용 및 확대계획>

(향후 12개월 이내)



[사례1]

수출기업인 A회사는 주요 타깃시장이 중국이다. 중국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최근 국내대학을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을 채용하여 해외영업 담당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한지 5년 이상 되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해 채용되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및 문서작성 등에도 문제가 없다.

기존에는 중국내 거래선 확대를 위해 통역사 등을 임시로 활용하곤 하였으나, 중국인 유학생 채용 이후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물론 현지 출장시에도 큰 도움을 준다. 유학생 채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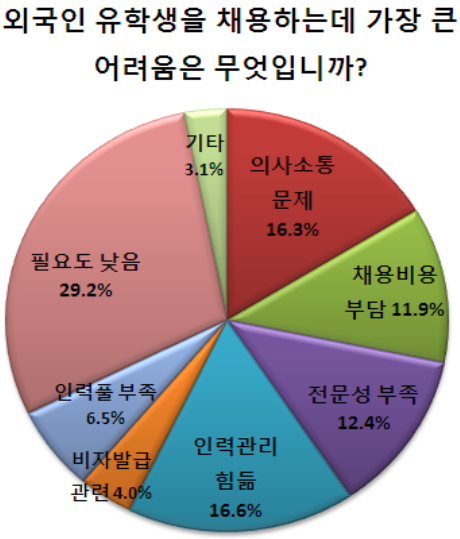
[사례2]

대기업인 B화학은 중국인 유학생을 이미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부장까지 진급한 사례도 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임금체계는 한국인 근로자와 큰 차별이 없다.

(출처 : 자체 인터뷰)

☐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유학생 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인력관리 및 의사소통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

○ 외국인 유학생 채용과 관련하여 29.2%의 기업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며, 인력관리가 힘들고(16.6%) 의사소통(16.3%)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참고]

○ 2010년 8월, 일본기업인 (주)디스코는 일본의 9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 그 결과 2010년 유학생을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였고, 2011년에 채용할 것이라고 한 기업은 21.7%로 두 배 가량 높은 결과가 나옴
- 또한 해외지사를 가진 기업이 2010년 19.8%에서 2011년 36.1%로, 해외지사가 없는 기업은 6.4%에서 12.3%로 외국인 유학생 채용 확대가 예상 됨

○ 2009년 재일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의 24.1%가 일본내 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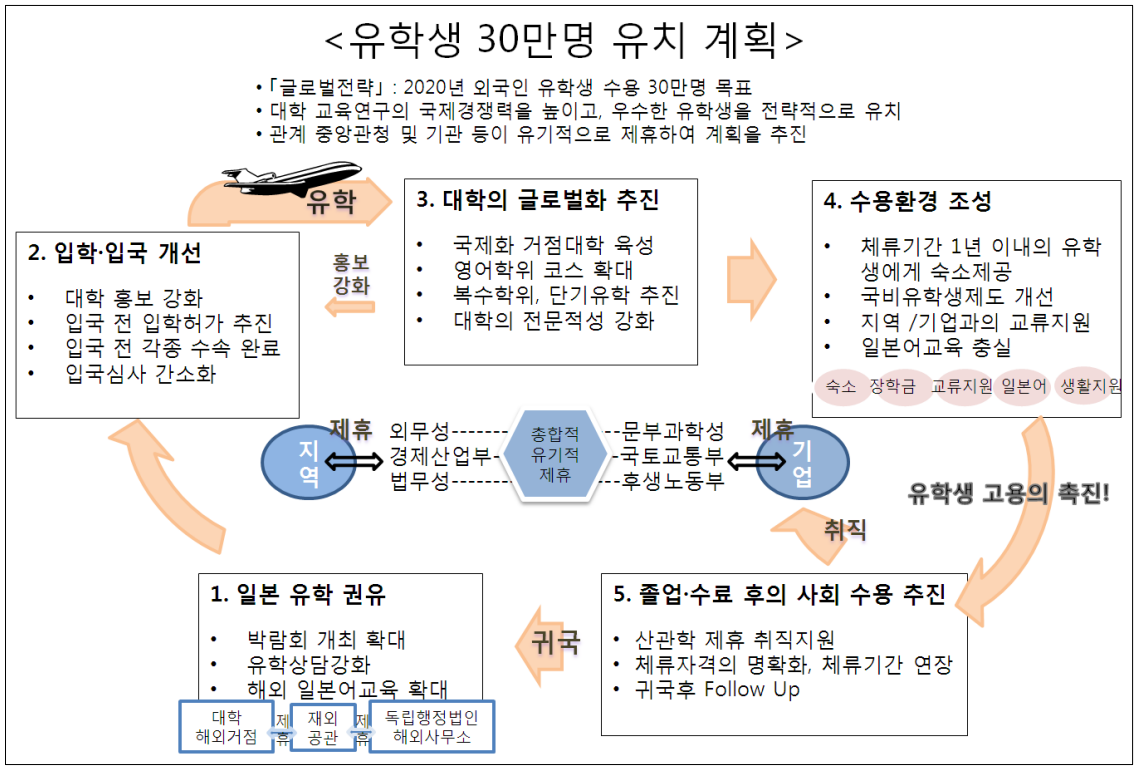
- 2008년 4월~2009년 3월 동안 일본대학 등을 졸업 및 수료한 유학생 36,271명 중 일본내 기업에 취업한 수는 8,736명으로, 취업률이 24.1%에 이르는 것은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

Ⅳ. 일본의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여 일본을 유학생에게 열린 나라로 만드는 글로벌 전략을 제시

○ 이는 2020년까지 3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하는 등 자국내에 세계의 인력·상품·화폐·정보가 활발하게 흐르도록 유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에서부터 입학, 졸업, 취업지원 등 폭넓은 지원책 강구



자료 : 문부과학성(2008)

1) 일본 유학 권유

□ 외국인 학생의 일본 유학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전개

○ 'Visit Japan'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관광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적극 제공하는 등 일본의 국가 브랜드로서 확립하고자 노력

○ 이와 함께,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진학설명회 및 일본 유학페어 현지 개최 등 박람회를 통해 각 대학의 상세한 유학정보를 제공

- 최근 북경시, 흑룡강성, 요녕성, 광동성 등에서는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유학생 유치활동을 하는 한편, 단독으로도 참가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

<대표적인 일본의 유학박람회 및 세미나>

개최도시	특징
아시아 5개국	JASSO(일본학생지원기구) 주최, 현지 일본유학 희망자 및 관계자 대상 박람회로 일본단독 참가
북미, 유럽 등	현지단체 주최, 대학 등 교육기관의 국제교류 담당자 대상 박람회
중국, 말레이시아 등	국제교육전으로 세계 각국의 관련기관 참가
중국, 네팔 등 5개국	일본유학 세미나로 현지 귀국유학생회 및 재외 일본공관과 협력하여 JASSO가 주최
한국, 프랑스, 홍콩, 등 기타 10여개국	Visit Japan 캠페인 등 국제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유학부스 설치 및 프로모션 진행

* 2010년 개최 기준

○ 재외 공관, 해외 주요대학, 대학분교 등 해외 거점과 제휴하여 일본 유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 JINTO(일본재정관광국) 상해사무소와 나가노현, 아이치현 등은 중국측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교육여행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프로모션 전개

- 해외 주요대학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일본어 교육의 거점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일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2) 입학 및 입국 개선

□ 해외에서의 입시 및 입학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유학생의 원활한 입국과 체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외국인 수험생이 모국에서 일본유학시험을 보고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제공(와세다, 메이지대학 등 총 89개 대학, 2011년 1월 기준)

- 일본유학시험(EJU)은 대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일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종합과목, 수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유학생 유치 및 일본인 학생의 해외 유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을학기(9월) 대입 추진(2008년 4월부터 실행)

- 문부과학성은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 수용의 최대장벽으로 '4월 입학 시스템'을 꼽고 대학입학 시기를 자유화 하도록 학교교육법실시규칙 일부 개정

○ 신체류관리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을 연장하고 재입국허가 면제를 실시(2009년 7월 개정법 공포)

- 유학생의 일본 체류기간을 최대 2년 3개월에서 4년 3개월로 연장하고,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수속 생략

3)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화 거점이 되는 대학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글로벌 30) : 30개 국제화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외국어 수업체제를 구축하고 유학생 생활환경을 정비

-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로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어 코스를 대폭 증가시키고, 유학생 생활지원 및 언어교육, 취직지원 등 유학환경 조성(대학 당 2~4억 엔을 5년 동안 지원)

- 동경대, 와세다대, 큐슈대 등 8개 대학의 해외사무소를 기타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

○ 교환학생, 학점교환 등 해외 주요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제휴, 단기 유학, 여름학기 등의 교류 촉진, 커리큘럼의 질적 제고 등으로 대학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

4) 유학생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나은 주거, 생활 및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

○ 대학이 각 관계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유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숙사 정비, 민간 숙소 확보, 공공 기숙사 활용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2010년 5월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23.2% (32,891명)가 대학 및 공공 기숙사에서 생활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거주현황>

		유학생 수	비중(%)
학교 설립 유학생숙소	국립대학	7,399	5.2
	공립대학	395	0.3
	사립대학	12,164	8.6
	합계	**19,958**	**14.1**
법인 설립 유학생숙소	JASSO 설립	2,227	1.6
	공익법인 설립	893	0.6
	지방공공단체 설립	1,046	0.7
	공영주택 등	1,963	1.4
	민간 기숙사	609	0.4
	합계	**6,738**	**4.8**
학교 설립 일반기숙사	국립대학	3,110	2.2
	공립대학	218	0.2
	사립대학	2,867	2.0
	합계	**6,195**	**4.4**
기타 민간숙소 및 아파트		108,883	76.8
총 합		**141,774**	**100.0**

자료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2010

○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비 유학생에 대한 기타 지원책의 개선을 도모

– 유학생 국민보험료 보조사업으로 자비유학생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700엔/월 지급(예 :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일본의 유학 형태별 외국인 유학생 수>

	자비유학	국비유학	외국정부파견	총합
학생 수	127,920	10,349	3,505	141,774
(비중%)	(90.2)	(7.3)	(2.5)	(100.0)

자료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2010

○ '사회의 유학생 수용'이라는 취지로 정부, 기업, 학교, 지자체 등 컨소시움을 이루는 전국단위의 '유학생 교류 종합추진회의' 창설

5) 졸업 후 사회진출

□ 대학(원)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귀국 후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등 사회진출 지원

○ 대학에 취업상담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유학생 취직지원은 물론, 체류비자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힘씀

–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직활동 기간(취직준비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2009년 4월)

○ 유학생 인턴십 및 산관학 제휴 취직지원 등으로 외국인 학생 채용기회 확대

– (도쿄)매년 하계, 춘계에 유학생 인턴십 정보를 제공하며, 2009년 하기 JAL, 미스이스미토모은행, 타카시마야 백화점 등 37개사가 참여했고, 2010년 춘계에는 미쓰이화학 등 18개사가 참여

– Hellowork(공공직업안정소)와 다양한 기업이 합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채용기회 확대

○ 귀국 유학생의 동창회 조직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귀국한 후 일본 관련 업무·활동에 활약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유지 및 강화

- 외무성은 각국에 조직된 귀국유학생회 약 160여개(102개 국가)에 대해 설립 지원 및 활동지원 실시

- 문부과학성과 JASSO는 귀국유학생 단기연구제도 및 귀국유학생 연구지도사업 등을 운영

[참고]

○ 귀국유학생 단기연구제도 : 유학을 마치고 자국에서 교육, 학술연구 등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유학생에 대해 출신대학의 연구자와 함께 단기연구 기회 제공. 연구기간은 60~90일이며, 왕복항공비 및 체재비 등 지원

○ 귀국유학생 연구지도사업 : 유학을 마치고 자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교육,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귀국유학생에 대해 출신대학의 지도교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연구지도 등을 실시

Ⅴ. 중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전략

1. 개요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계는 지금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자원 유치 경쟁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듦

–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사회[10]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 8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여타 국가에 비해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름[11]

·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독일 77년, 일본 36년 등 소요(예상)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글로벌인재 양성 차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우호 및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이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미래의 잠재시장을 개척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음

<연도별 전세계 유학생 동향>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세계 유학생 (천 명)	2,337.9	2,546.2	2,738.5	2,852.3	2,957.4	3,082.4	3,343.1
증가율(%)	14.5	8.9	7.6	4.2	3.7	4.2	8.5

자료 : OECD, UNESCO(2010)

10)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임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년 11월

2.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전략

□ (브랜드 마케팅) 중국내 한국의 교육서비스 브랜드 구축 및 확산

○ 대외적으로 제공되는 한국문화 홍보자료에 교육서비스 관련 정보를 삽입하는 등 문화와 교육을 결합한 유기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

- 관계부처간의 제휴 및 협력을 통해 문화·관광·교육 등 대외 홍보시 'Study in Korea' 이미지 및 정보를 노출

○ 국제 대학박람회 참가시 외국인 학생 유치는 물론, 타국의 주요대학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

□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및 능력시험을 확대하여 한국으로의 유학 수요 기반을 확대

○ 한국어교육 거점화 사업추진 : 주요 지역 및 대학에 한국어 교육을 확산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학생의 관심도 제고

- 현재 중국의 경우 북경, 상해 등을 포함하여 총 30개 지역에서 연간 2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

-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된 인터넷 한국어 교육방송 제작 및 무료제공

○ 한국어교육 품질관리 : 올바른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엄격한 관리규정 필요

□ 한류(韓流)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한국문화 및 유학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 음반, 드라마, 영화 등 한국문화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류와 연계하여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홍보

- 이는 특히 중국인 학생의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 주요대학 및 유학관련 기관 등과 제휴하는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 2008년 12월 현재, 한·중 지자체간 협약건수는 총 352건[12]이나 이벤트성 행사 및 표면적인 행정교류가 적지 않음

· 지자체의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관련 교류확대는 향후 양국간 경제 교류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인식

– 일본의 경우, 히로시마현, 나가노현, 아이치현 등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섬에 따라 기숙사, 장학금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음

❑ 유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국내 체류기간 확대 검토

○ 현재 한국은 졸업 후 6개월까지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취직활동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음

○ 일반 대학생들도 졸업 후 최장 1~2년의 준비기간 및 시행착오를 거쳐 취업하는 만큼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 검토

❑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조사를 통한 통계확립 등 기초인프라 구축

○ 현재까지 유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실행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지원방향을 마련하기 힘듦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내, 본국, 기타지역으로의 취업 및 진학 등 상세한 조사(Follow up)를 통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전략을 도모

12) 한중 지자체 교류현황 백서에 따르면, 한중 수교이후 2008년 12월 현재 지자체간 협약건수는 총 352건(자매결연 174건, 우호협약 178건)로, 이 중 20% 이상의 교류활동에 대해 사실상 중단됐음을 의미하는 평가를 내림

3. 국내대학의 유학환경 개선

□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언어(의사소통)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추진

○ 국내 중국인 유학생 설문결과, 학업관련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문제(33.1%)였던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유학생의 단계별 어학코스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학원 등록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학사과정과는 별개의 어학교육 시스템 운영)

· 현재 유학생의 입학허가 어학능력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며 졸업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함

□ 학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생의 학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학정원 및 수업내 유학생 비율관리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

– 현재 국내 대학은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두어 학사관리 등이 비교적 허술한 상황

· 설문결과에 따르면, 한 수업 당 중국인 학생이 너무 많아 학업 분위기 조성이 어려우며, 학점 등 평가제도에 대한 공정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못 미침

– 반면, 일본의 아오모리 대학은 최근 학업에 소홀한 외국인 유학생 140명을 제적조치 한다는 발표[13]

○ 일정 부분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궁극적으로 대외 한국의 교육서비스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준 높은 해외인재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건임을 인지해야 함

□ 유학생의 활발한 과외활동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올바르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13) 朝日新聞社 (http://www.asahi.com/edu/news/TKY201101170133.html) 2011년 1월 17일

○ 교내 동아리 가입 및 활동유도 등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자체 설문 중, 한국 학우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16.6%였으며, 실제로 유학 후 반한 감정을 갖는 사례도 적지 않음

- 이에 따라 버디시스템[14], 멘토링제 같은 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교내 과외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례]

서울 S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중국인 P학생은 한국에 온지 올해로 8년째이다. 그는 대학생활 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의 친분을 쌓았고, 서울권 소재 여러 대학에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어학원에서부터 한국어를 공부한 그는 현재 한국인 못지 않은 언어력을 구사하며, 향후 국내취직은 물론 한국으로의 귀화도 결심하고 있다.

(출처 : 자체인터뷰)

○ 학과조교(TA/RA), 근로장학생 등 유학생의 대학내 시간제 취업[15]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문화 및 국내환경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숙소지원 확대

○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우선보급과 더불어 홈스테이, 아파트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숙소관련 지원 확대 필요

- 대학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은 2010년 39.0%에 이르지만, 그 밖의 경우 숙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을 선택하기도 함

14) Buddy System : 외국인 유학생과 자국의 학생을 1:1로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국의 일부 대학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15)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학기 중 월~금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 및 주말 시간/장소 구애 없음. 단, 대학 등에서 보수를 받고 행하는 TA/RA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도 가능(2010년 7월 시행)

– 특히, 한국 유학생활을 갓 시작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홈스테이, 아파트 등 기숙사 이외의 숙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

○ 일본 문부과학성은 단기유학을 포함하여 일본 도착 후 1년 이내의 유학생에게 공공기숙사 등을 제공 및 지원(2010년 3.3만명 수용, 2020년 7.5만명 목표)

[참고] 일본 문부과학성 유학생 숙소제공 관련 정책

○ 대학이 아파트를 임대하여 유학생 숙소로 제공시 1.6억 엔 지원

○ 유학생 숙소 정비 약 53억 엔 지원(큐슈대학)

(출처 : 문부과학성, 2009년)

□ 유학생이 원하는 경우,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학내 열린 취업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기회를 확대

– 채용정보 제공은 물론, 한국의 취업문화를 이해시키고 원서작성 등 맞춤형 상담 필요

– 기업과 대학이 연계한 유학생 인턴십은 유학생들의 취업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한편, 직간접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4. 기업의 유학생 활용확대

□ 기업의 유학생 채용확대는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2010년 말 우수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외국인의 일본유학 문의가 급증

○ 정부의 관련정책 및 기업의 주기적인 의견조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향후 방향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자체설문 결과 중소기업 취업도 고려하는 유학생이 86.8%에 달한 만큼, 무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마케팅 등에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외국인 유학생 및 중견인력의 취업을 돕는 전문포털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을 알선

○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할 우수한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특히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등) 시장으로의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해외지사에서 인력 채용시 국내 유학생 고려

○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서작성 및 의사소통 등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유리

– 현지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업무 능력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 본사에서 채용한 뒤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 해외 지사로 파견할 경우 조기에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또한 인턴십을 수료한 유학생에 대한 기업차원의 사후관리를 통해 귀국 후 해외지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업들 간에 유학생 풀(pool)을 공유하여 필요 국가 및 지역에서 인력 채용시 참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필요

<참고자료>

(단행본 및 논문)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2010
교육과학기술부, “해외 한국인 유학생 통계”,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2010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 2010
국립국제교육원, “2010 외국인 유학생 상담 사례집”, 2010
국립국제교육원, “유학박람회 실적 2010”, 2010
국제무역연구원,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2010
재중국 한국대사관, “한중 지자체 교류현황 백서”, 2009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중국통계적요 2010”, 2010
日本学生支援機構, “平成22年度 外国人留学生在籍状況調査結果”, 2010
文部科学省, “留学生 30万人 計画 骨子”, 2008.07.29.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11.

(신문기사)
중앙SUNDAY, “중국인 유학생 6만명...”, 2011
매일경제, “중국인 유학생 마구잡이 유치”, 2011
朝日新聞社, “아오모리대학, 위장유학생 제적”, 2011.01.17.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스터디인코리아 www.studyinkorea.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www.hikorea.go.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UN Service Trade www.unstats.un.o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www.iie.org
일본 입국관리국 www.immi-moj.go.jp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재정법인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http://www.kcif.or.jp
일본 관광청 http://www.mlit.go.jp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
도쿄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http://www.tfemploy.go.jp

한국과 일본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비교연구

Trade Focus Vol.10 No.17

발행인| 사공 일
편집인| 이경태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1년 4월 17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